

## 초등학생들의 어휘능력 및 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

맹은경, 김성혜<sup>†</sup>

아주대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Maeng, Unkyoung, & Kim, Sunghye. (2011). Vocabulary proficiency of prim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perception on English vocabulary. *Modern English Education*, 12(2), 115-13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Korean primary school students on the vocabulary of their English textbook. It also investigates the vocabulary proficiency level of Korean primary school students and analyzes the associations among student variables (grade, private tutoring, oversea training/schooling experience). One thousand thirty-three prim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 vocabulary test and questionnaires were used to collect the data. For the data analysis, Crosstabs and Multiple Response were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s; 1) 44.9% students were accorded a vocabulary proficiency level 2 (500 word level), 38% of them a vocabulary proficiency level 3 (750 word level) and 6% of them a vocabulary proficiency level 4 (1100word level). 2) Most of the students recognized that the vocabulary of their English text book was not difficult. In addition, 49% of the students mentioned that over 70% of the target words were known words and overall 79.5% of them mentioned that more than 50% of the target words were known words. These results were associated fully with private tutoring and oversea schooling experience. 3) Most of the students recognized that they should and can learn at least 4 new words per hour. This result was affected fully by private tutoring and partially by oversea schooling experience. 4) A group of words associated with school life were used the most by the students and they want to learn more specific names of concrete objects or actions.

[vocabulary proficiency level/perception/vocabulary of  
English text book/primary school students/어휘능력수준/인식/영어교과서  
어휘/초등학생]

---

\* 본 연구는 2009학년도 아주대학교 정착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sup>†</sup> 제1저자: 맹은경; 제2저자: 김성혜.

## I. 서론

어휘는 언어를 구성하는 요소 중 외국어 학습자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이다. 어휘는 의미를 전달하는 단위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선행연구 결과 문법적 오류는 의사소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어휘적 오류는 의미전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Gass, 1988; Meara, 1984). 또한 Blaas(1992)는 L2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오류가 어휘적인 오류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더욱이 L2 화자가 문법적 오류를 범하였을 때 보다 어휘적 오류를 범하였을 때 L2 화자의 발화에 대한 모국어 화자의 이해가 현격하게 낮아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McCarthy(1991)는 어휘가 모든 언어의 기본 단위이며 외국어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상당히 많은 어휘를 습득해야만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어휘능력이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전까지 어휘학습이 외국어 학습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80년대 이후 외국어 학습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중요시 여기면서 의사소통 교수법 등장과 더불어 어휘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후반에 어휘중심 교수법(lexical approach)의 등장으로 어휘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었다(Brown, 2007). 특히 언어학습의 초기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휘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Gower, Phillips & Walter, 1995; Nunan, 2000).

Laufer(1998)는 학습자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어휘수가 증가할 때 언어 능숙도가 향상되었다고 인식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여러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어휘습득 수준과 외국어 능숙도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Lambert, 1972; Schmitt, 1998; Zareva, 2007).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학습자가 음성언어나 문자언어의 텍스트를 어느 정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텍스트의 어휘를 최소 95% 정도를 알고 있어야 하며, 주어진 텍스트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98%이상의 어휘를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다(Bonk, 2000; Hirsh & Nation, 1992; Hu & Nation, 2000; Laufer, 1992). 어휘능력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능력에 모두 영향을 주며 특히 초기 외국어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 다른 어떤 언어 요소보다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영숙, 2002; 배두본, 1997; 안미정, 2006; 이완기, 1996; Higgs & Clifford, 1982). 또한 어휘중심 교수법의 등장으로 어휘가 외국어학습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Nation, 2003; Read, 2004).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학습자가 원활하게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어휘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영어교육 목표를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두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여 가르치고 있다. 어휘는 앞서 언급된 많은 연구에서 시사하였듯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네 기능을 학습하는 데 기본이 되기 때문에 영어를 처음 학습하게 되는 초등학교 학습자에게 어떤 어휘를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는 초등영어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초등영어 기본어휘는 별도의 어휘연구를 거치지 않고 제6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어휘목록 중 중학교에서 학습해야 할 어휘의 일부를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도록 구성 하였으므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어휘목록인지 어휘수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증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이홍배 등, 1995; 최진항, 박기화, 김은주, 정국진, 노시백, 1977). 제7차 교육과정의 어휘 목록 역시 제6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 어휘 수를 30%정도 줄여 기본어휘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어휘 별 선정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어휘 수 타당성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김인석, 정동빈, 1999; 장경숙, 2007).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보다 기본 어휘 선정기준 및 근거자료가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장경숙, 2007), 어휘 수와 관련된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김영숙(1997)은 초등영어 기본어휘 분석결과를 토대로 표현 어휘는 기존과 같이 제한하되 이해 어휘는 제한을 두지 않거나 제한 폭을 넓힐 것을 주장하였으며, 김인석, 정동빈(1999)은 빈도 외에 유용도와 친숙도를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어휘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다른 나라 교과서 어휘를 비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에 수록된 어휘 양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고, 주제 영역도 다양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김지현, 2005; 박제희, 2003; 서은경, 2008). 이와 같은 연구는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어휘가 체계적이고 명확한 선별기준에 의거하여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어휘화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교사나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해왔으며 정작 교육의 주체가 되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학년별 어휘 능력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초등영어교과서 어휘에 대하여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향후 타당한 초등영어 어휘 수 및 목록을 선별하는 데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학생들의 어휘 능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학년, 사교육 유무 및 해외교육 경험에 따른 어휘 능력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2. 초등학교 학생들이 영어교과서 어휘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학년, 사교육 유무 및 해외교육 경험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3. 초등학교 학생들이 영어수업시간에 학습 가능한 어휘의 수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학년, 사교육 유무 및 해외교육 경험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4.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떠한 어휘를 학습하기를 희망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어휘학습과 어휘 수

어휘는 언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발음, 철자, 형태소, 어휘변이, 굴절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문법적, 지시적, 정의적, 화용론적 의미등과 같은 다양한 관련된 정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휘학습은 외국어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Laufer, 1997; McCarthy, 1990; Read, 2000). 모국어 학습자의 경우 어린 시절에 어휘습득이 가장 왕성하게 진행되며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학습과정이다. L2학습자의 경우 능숙도가 높아지더라도 상대적인 어휘 결핍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모국어로 표현할 때처럼 유창하게 L2로 의사를 소통하지 못하게 된다.

MarCarthy(1990)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문법이나 음성적인 요소보다 광범위한 어휘에 대한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초기단계의 학습자일수록 어휘가 학습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휘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김인석, 정동빈, 1999; Cook, 1994; Gower et al., 1995; Higgs & Clifford, 1982; Nunan, 2000). 또한 어휘능력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능력에 모두 영향을 주며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어진 텍스트의 어휘를 98%이상 알고 있어야 한다고 여러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다(Bonk, 2000; Hirsh & Nation, 1992; Hu & Nation, 2000; Laufer, 1997). L2학습자와 교사도 이처럼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의 어휘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L2학습자는 많은 시간을 어휘학습에 투자하며 L2 교사와 학자들은 어휘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Read, 2000).

따라서 영어학습 초기단계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단어를 어느 정도 가르쳐야 되느냐가 성공적인 어휘학습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Lado(1964)는 말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 단어, 듣기와 쓰기를 위해서는 최소 3000 단어, 읽기를 위해서는 최소 7000 단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Nation(1997)은 L2 학습자가 2000개의 어휘를 알고 있을 때 문자언어 텍스트의 80%, 음성언어의 96%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000-3000개의 단어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이러한 연구 결과는 L2 학습자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2000개의 어휘를 학습해야 하며 읽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어휘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Wendy와 Ytreberg(1990)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언어형식 및 개념을 동시에 학습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시간당 4-8개의 단어를 학습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고, Cross(1995)는 L2/EFL 학습자에게 시간당 5-7개의 단어를 가르치는 것이 적합하다고 언급하였다. 김인석, 정동빈(1999)은 언어학적 차이, 영어교사의 자질 및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시간당 최소 3개의 단어 정도는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국어 학습자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연간 1000-2000개의 어휘를 배우며 하루에 약 3-7개의 어휘가 학습되는 것으로 추정되며(Taylor, 1990), 교과서는 시간당 4-8개의 새로운 어휘를 가르치게 구성되어 있다(Wendy & Ytreberg, 1990). EFL 환경인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초등학교 학생들은 주당 4-5시간씩 5년간 1000-2000 단어를 학습하게 되어있으며, 아프리카의 경우 주당 3-5시간씩 3년간 1500-2000 단어를 학습하게 되어있다(Fox, 1987; Nation, 1990). 또한 대부분의 EFL 교재도 3년간 1500-2000개의 어휘를 가르치도록 구성되어 있다(Fox, 1987).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2008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520단어 이내를 학습할 것을 권장하며, 기본 어휘 목록에 제시된 초등권장 어휘 736개 중 390 단어 이상을 학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즉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520단어를 주당 2-3시간씩 4년간 학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 할 경우 시간당 1.5개의 단어를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어휘 학습량은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초어휘의 최소 학습량에 견주어 볼 때나 EFL 환경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적은 학습량이다.

영어를 처음 학습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휘 수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학습할 어휘 수만을 줄인다고 해서 학습자의 학습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단순히 어휘 수만이 어휘 학습 난이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발음, 품사, 유사성, 학습 형태 및 학습자의 언어사용 능력과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다. 즉 발음하기 쉬운 단어, 명사나 형용사에 해당되는 단어, 외래어(영어) 단어, 표현 언어 보다 이해 언어로 학습되는 단어를 학습하는 경우가 학습부담이 경감된다. 따라서 이러한 어휘가 많이 포함 될수록 학습할 어휘 수가 많아도 학습 부담이 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Henning, 1973; Higa, 1965; Jordan, 1982; Rodgers, 1969).

이러한 적은 양의 어휘 제한은 오히려 초등학교 학생들의 어휘 확장의 기회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과서 집필에 제약을 가져오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향상에 필요한 실제 자료를 학습자에게 제공하기 어려우며, 흥미롭고 다양한 수준에 적합한 차별화된 교과서를 구성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된다(김영숙, 1997; 서은경, 2008; 신동광, 주현우, 2008). 또한 초등학교 영어와 중학교 영어의 학습 수준과 양에 있어서 연계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영어간 교과서의 연계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김정렬, 천윤희, 2008).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초등학교의 신출 어휘 수를 증가시킬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김정렬, 천윤희, 2008; 이완기, 최연희, 부경순, 이정원, 2001; 최연희, 이정원, 이완기, 부경순, 2003)

국내의 여러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하였듯이(김영숙, 1997; 김인석, 정동빈 1999; 박제희, 2003; 안미정, 2006) 위와 같은 연구 결과는 초등학교 권장 어휘 수를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증가시킬 필요성을 시사한다.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환경적 요인은 외국어 학습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므로(손승희, 2006; 이효웅, 오준일, 2000; Brown, 1993; Skehan, 1989), 초등 어휘 수 및 목록을 결정하는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어휘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교사나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해왔으며 정작 교육의 주체가 되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초등영어가 처음 실시된 10여년 전과 비교할 때 학습자의 학습환경이 많이 변하였으므로 학습환경에 따른 학습자의 어휘능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휘능력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어휘를 초등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잘 습득하였는지를 살펴보는 어휘성취도 연구로서(김인석, 강진, 2007; 손승희, 2006) 초등학교 학생들의 어휘능력을 객관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년, 사교육 유무 및 해외교육 경험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들의 어휘능력 수준을 살펴보고 현 초등학교 영어교과서 어휘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타당한 초등영어 어휘 수 및 목록을 선별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2. 기본 어휘 선정 기준

영어 어휘는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화자에게 모든 어휘를 가르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본어휘를 선정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김영숙, 2002; 김영태, 2002; Goulden, Nation, & Read, 1990). 기본어휘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White, 1988). 방대한 영어 어휘 중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를 선별하여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므로 사용 빈도(frequency of use)를 고려하여 어휘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적용범위(coverage)가

넓은 어휘와 문어체 및 구어체 등 여러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분포도(range)가 넓은 어휘를 선별하여 가르쳐야 하며, 학습자가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유용성(availability)이 높은 어휘, 쉽게 학습 할 수 있는 학습 용이도(learnability)가 높은 어휘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사용빈도, 적용범위 및 분포가 낮은 어휘라도 학습자가 자주 접하는(opportunism; 예를 들어 days of week, names of months 등) 어휘도 선별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어휘도 적절히 선별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Carter, 1987; White 1988).

이외에도 Harmer(1991)는 주제, 기능, 구조, 교수 능력과 같은 다른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Haycraft(1978)와 Saville-Troike(1976)는 학습자의 욕구를 중요한 어휘 선정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Mackey(1965)는 학습자가 필요로 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어휘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사용 빈도, 적용범위, 분포범위, 유용성, 학습 용이도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강조하였다. Richard(1974)는 빈도, 분포범위, 유용성, 적용범위, 학습 용이도 외에도 언어적 필요(language needs), 친숙도(familiarity) 및 규칙성(regularity)을 기본 어휘 선정 기준으로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제7차 초등학교 영어교육과정에서도 어휘 선정의 기준으로 빈도, 분포범위, 학습 용이도, 학습자의 필요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1999).

앞에서 논의된 여러 연구결과를 살펴 볼 때 빈도, 분포범위, 적용범위와 같은 다소 개관적인 선정 기준과, 학습자의 흥미/관심/욕구/친숙도/필요성과 같은 주관적인 선정 기준이 공통적으로 기본어휘 선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초등영어 어휘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부분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초등영어교과서에 제시된 어휘를 분석하였으며(김영태, 2002; 김택수, 2003; 한두진, 2006) 학습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분석된 연구는 제한적으로 친숙도와 관련된 연구가 소수 있다(김영현, 박영임, 조은희,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습하기를 원하는 어휘가 무엇이며 자주 사용하는 어휘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타당한 초등영어 어휘 수 및 목록을 선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 지역 2개 초등학교, 경기지역 7개 초등학교(수원, 용인, 평택, 화성, 분당), 대전 1개 초등학교의 총 103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어휘능력 평가 및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영어를 정규 과목으로 학습하고 있는 3, 4, 5, 6 학년으로 분포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초등학생 기초자료 (명)

지역			학년				성별		사교육		해외교육	
경기	서울	대전	3	4	5	6	남	여	유	무	유	무
743	211	88	197	270	339	227	546	484	723	303	91	934

본 연구에 참여한 남학생은 53%, 여학생은 47%로 비교적 남녀 학생이 고른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참여학생의 70.5%가 영어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또한 대다수의 학생이 해외 교육기관에서 영어를 학습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첫 번째 1000단어는 영어를 학습하는 모든 학습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본 어휘이다(Nation, 1993). Nation의 ‘Vocabulary Test: 1,000 Word Level Test’ (Nation, 1993)는 첫째, 읽기능력이 낮은 학습자에게도 듣기를 통하여 어휘능력을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으며, 둘째, 내용어(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만을 테스트하도록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그 결과를 활용하여 기능어에 대한 학습자의 수준도 추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영어를 처음 학습하게 되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객관적인 어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Nation의 ‘Vocabulary Test: 1,000 Word Level Test B’를 사용하여 어휘능력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 어휘 테스트는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제로 활용한 한 문항을 제외한 39 문항 중 맞은 문항 수를 시험 점수로 계산하였다. 모든 문항은 주어진 문장을 읽고 해당 문장이 맞으면 “① 0”, 틀리면 “② X”, 문장이 이해가 안되면 “③ 잘 모르겠다”를 선택하도록 재구성하였다.

대다수의 ‘Graded Reader’ 시리즈 책들은 기본 1000단어 내에서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Graded Reader’ 시리즈 책 중 하나인 *Longman Structural Readers*는 300 단어 수준(1단계), 500 단어 수준(2단계), 750 단어 수준(3단계)과 1100 단어수준(4단계)으로 구분되어 있다. Nation(1993)은 그의 연구에서 위와 같은 어휘 수준과 그가 작성한 어휘 시험(Vocabulary Test: 1,000 Word Level Test)간에 객관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어휘 시험 결과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어휘 수준에 적합한 단계를 측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즉 학습자가 40문항 중 맞은 문항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는 1단계, 11~20개인 경우는 2단계, 21~30개인 경우는 3단계, 30개 이상인 경우는 4단계에 해당되는 어휘 능력을 갖고 있다고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점수분포 기준을 사용하여 어휘능력 수준을 1~4단계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교과서 어휘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교과서 어휘 난이도 및 학습에 관련된 영역, 학습 어휘 수에 관련된 영역, 학습 희망 어휘와 관련된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총 13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단계 Likert 평점척도로 구성된 선택형 문항 2개, 자유 반응형 문항 9개(부분 개방형 포함)와 개방형 문항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어휘 시험과 설문은 2학기말 각기 다른 날에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어휘시험의 경우 읽기능력 시험이 아니므로 학생들이 읽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교사가 주어진 문항을 읽어주고 학생들이 답하게 진행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 중에는 모든 설문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가 소수 있어서 설문 문항에 따라서 총 응답자 수가 설문에 참여한 숫자보다 적은 경우도 있었다. 선택형 질문은 다중응답분석 및 교차분석을 활용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하였으며 개방형 질문은 범주화하여 기술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 1. 어휘 능력

초등학교 학생들의 어휘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어휘능력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학년별, 사교육 및 해외유학 경험 유무에 따른 어휘 능력시험 결과는 표 2, 3과 같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학년별로 초등학생들의 어휘 능력을 살펴 본 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이 2단계와 3단계에 분포되어 있다. 어휘 수준 분류기준에서 제시하였듯이 2단계는 기본 어휘 1000 단어 중 500 단어 정도의 어휘 수준을 갖고 있는 단계를 나타내며, 3단계는 750 단어 정도의 어휘 수준을 갖고 있는 단계를 나타낸다. 즉 어휘능력 시험 결과 초등학교 학생의 44.9%가 500 단어수준의 어휘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8%가 750 단어수준의 어휘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00 단어수준의 어휘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의 경우도 6%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휘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chi^2 = 94.388$ ,  $p=.000$ ). 구체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1단계에 해당되는 학생수는 줄고 2, 3, 4단계에 해당되는 학생 수는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3학년의 경우 이미 46.7%정도가 500 단어수준의 어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7.4%정도가 750 단어수준의 어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5, 6 학년의 경우 각각 47%, 43%, 44%가 500단어 수준의 어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50 단어 수준의 어휘를 갖고 있는 경우도 각각 34%, 42%, 45% 로

나타났다. 또한 1100 단어 수준의 어휘를 갖고 있는 경우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였으며 6학년의 경우 10%정도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 학년별 어휘 능력

어휘능력수준	학년				Total
	3	4	5	6	
1	49(24.9%)	39(14.4%)	25(7.4%)	1(0.4%)	114(11.0%)
2	92(46.7%)	127(47.0%)	145(42.8%)	100(44.1%)	464(44.9%)
3	54(27.4%)	93(34.4%)	143(42.2%)	103(45.4%)	393(38.0%)
4	2(1.0%)	11(4.1%)	26(7.7%)	23(10.1%)	62(6.0%)

$\chi^2 = 94.388, p=0.000$

즉 이러한 결과는 89%정도의 학생들이 최소 500 단어 이상의 어휘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저학년인 3학년의 경우 이미 500 단어 이상의 어휘를 알고 있는 학생이 74.4%나 되며, 4학년의 경우는 85.5%가, 5학년의 경우는 92%가, 6학년의 경우는 거의 대다수(99.6%)가 이미 500 단어 이상의 어휘를 알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008개정 교육과정에 의하면 초등학교 3학년은 120 단어 정도, 4학년은 120 단어 정도(총 240 단어), 5학년은 140 단어 정도(총 380 단어), 6학년은 140 단어(총 520 단어)정도에 해당되는 새로운 어휘를 학습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휘능력 시험 결과는 현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학습하도록 권장되고 있는 520 단어 이상의 어휘를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하며, 초등학교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에서 학습해야 되는 어휘의 수를 현실적으로 늘려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어휘능력을 사교육 및 해외교육 경험에 따라 살펴본 결과 사교육 유무와 해외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학생들의 어휘능력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3 참조).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가 받고 있지 않은 경우보다 500 단어 이상의 어휘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 다소 많았다. 해외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대다수가 500 단어 이상의 어휘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학경험이 없는 학생의 경우도 500 단어 이상의 어휘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88.4%로 나타났다.

표 3  
사교육, 해외교육 경험 별 어휘 능력

사교육	어휘능력수준			
	1	2	3	4
있다	70(9.7%)	310(42.9%)	294(40.7%)	49(6.8%)
없다	44(14.5%)	149(49.3%)	98(32.3%)	12(4.0%)
있다	4(4.4%)	38(41.8%)	39(42.9%)	10(11%)
없다	109(11.7%)	422(45.2%)	353(37.8%)	50(5.4%)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여러 선행 연구(김영숙, 1997; 김인석, 정동빈, 1999; 박제희, 2003; 안미정, 2006)에서 주장하였듯이 초등학교 권장 기본어휘의 수를 현실 수준에 적합하게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사교육 유무, 해외유학 경험의 유무에 따라 어휘능력 수준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2. 초등학교 어휘에 대한 초등학생 인식

### 1) 교과서 어휘 난이도 및 영어학습에 대한 인식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의 어휘 난이도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교과서에 제시된 단어가 어렵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89%). 구체적으로 해외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93.5%)이 없는 학생(92.1%,  $p=.002$ )보다 교과서의 단어가 쉽다고 응답한 경우가 약간 더 많았으며, 학년간의 응답 차이는 없었다. 반면에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93.7%)이 받고 있지 않은 학생(76.8%)보다 교과서의 단어가 쉽다고 응답한 경우가 약 18%이상 많았다( $p=.001$ ).

전반적인 영어교과서의 난이도에 대한 질문에서도 역시 대다수의 학생(92%)이 영어교과서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92.5%)이 받지 않은 학생(86%,  $p=.000$ )보다, 그리고 해외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93.2%)이 없는 학생(92.5%,  $p=.002$ )보다 영어교과서가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그 이유로 “이미 다 배워서”, “학원에서 미리 다 배워서” 즉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학습하는 경우라고 제시한 경우가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 “난이도가 쉬워서”, “선생님이 쉽게 가르쳐 주셔서”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 교과서 어휘 난이도에 대한 인식

2. 영어수업 시간에 배우는 단어가 어렵다고 생각되나요?					
매우 쉽다	쉽다	보통이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246(23.8%)	241(23.3%)	434(42.0%)	77(7.5%)	35(3.4%)	
6. 영어수업 시간에 배운 단어 중 이미 알고 있는 단어가 어느 정도 있나요?					
10-30%	30-50%	50-70%	70-90%	90-100%	기타
126 (13.9%)	149 (16.4%)	179 (19.7%)	212 (23.4%)	239 (26.4%)	2 (.2%)
9. 무엇을 통하여 영어 단어를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었나요?					
학교영어수업	학원영어수업	영어학습지	방과후영어수업	기타	
238(23.6%)	606(60.0%)	83(8.2%)	31(3.1%)	52(5.1%)	

영어 수업시간에 배우는 어휘 중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학습하는 경우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의 학생들(84.1%)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해외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88.8%)이 없는 학생(83.7%)보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약간 더 많았다( $p=.041$ ). 반면에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90.6%)이 받고 있지 않은 학생(68.2%)보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0%이상 많았다( $p=.000$ ).

이미 알고 있는 어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한 결과 학습한 단어의 70% 이상을 이미 알고 있는 단어라고 응답한 경우가 49.8%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50%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까지 합하면 응답자의 수가 79.5%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해외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76.8%)이 없는 학생(59.4%,  $p=.000$ )보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74.5%)이 받지 않는 학생(55.5%,  $p=.000$ )보다 학습한 단어의 50% 이상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약 20% 정도 많았으며, 학년간의 응답차이는 없었다. 또한 초등학생의 60%가 주로 학원 영어수업을 통하여 영어 단어를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해외교육 경험 유무 및 학년에 따른 이러한 응답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사교육을 받은 학생은 74.3%가 학원 영어수업을 통하여 단어를 가장 많이 배웠다고 응답하였으며, 받지 않는 학생은 49.8%가 학교 영어수업을 통하여 단어를 가장 많이 배웠다고 응답하였다( $p=.000$ ).

이와 같은 결과는 학년에 관계없이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현재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에 제시된 어휘가 학습자의 수준에 비하여 쉽다는 것을 시사하며, 그 결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어휘 학습이 학교보다는 사교육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rashen(1981)은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의 현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언어 입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학습자의 현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언어 입력이 제공될 경우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초기 외국어 학습자에게 다른 어떤 언어 요소보다 어휘가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 단위이다(김영숙, 2002; 안미정, 2006; Higgs & Clifford, 1982; Laufer, 1997; McCarthy, 1990; Read, 2000). 따라서 위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외국어인 영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수준에 적합한 어휘를 학습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초등영어교과서에 제시된 어휘 수준 및 어휘 수를 현실에 적합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어휘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영어수업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영어수업을 통하여 단어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학년이 올라 갈수록 어휘학습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줄어들었다(표 5 참조). 또한 영어수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경우도 11.5%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6학년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22.1%가, 받고 있지 않는 경우 30%가 학교 영어 수업이 단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p=.009), 해외교육 경험에 따른 이러한 응답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학습에 대한 인식

11. 선생님과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할 때 어떤 면에서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학년	듣기 능력의 향상	말하기 활동 자신감	영어 읽기를 잘하게 됨	영작에 관심생기고 잘하게 됨	영어단어를 많이 알게 됨	도움이 거의 안됨
3	26(13.9%)	45(24.1%)	35(18.7%)	11(5.9%)	54(28.9%)	11(5.9%)
4	59(22.7%)	44(16.9%)	39(15.0%)	18(6.9%)	63(24.2%)	34(13.1%)
5	59(18.2%)	71(21.9%)	31(9.6%)	28(8.6%)	80(24.7%)	34(10.5%)
6	46(20.9%)	46(20.9%)	28(12.7%)	13(5.9%)	45(20.5%)	35(15.9%)
전체	190(19.2%)	206(20.8%)	133(13.4%)	70(7.1%)	242(24.4%)	114(11.5%)
$\chi^2=42.79, p=0.01$						
12.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학년	영어 말하기 실력	영어 듣기 실력	영어 문법 실력	영어 단어 실력	영어 쓰기 실력	영어 읽기 실력
3	50(27.6%)	15(8.3%)	42(23.2%)	20(11.0%)	29(16.0%)	23(12.7%)
4	83(32.5%)	11(4.3%)	63(24.7%)	25(9.8%)	37(14.5%)	29(11.4%)

5	93(29.0%)	24(7.5%)	93(29.0%)	42(13.1%)	40(12.5%)	19(5.9%)
6	67(31.0%)	21(9.7%)	63(29.2%)	33(15.3%)	18(8.3%)	8(3.7%)
전체	293(30.1%)	71(7.3%)	261(26.8%)	120(12.3%)	124(12.7%)	79(8.1%)

$\chi^2=34.25, p=0.012$

초등학교 학생들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말하기 실력, 문법실력, 쓰기실력, 어휘실력, 읽기실력 순서로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 단어실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표 5 참조). 사교육을 받는 경우 12.6%의 학생이, 받지 않는 경우 11.7%의 학생( $p=0.002$ )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어휘 실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교 영어수업을 통하여 필요한 어휘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초등학교생들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하기 능력과 문법 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받고 있지 않은 학생보다 어휘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학습 어휘 수에 대한 인식

초등학교에서 학습할 어휘 수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시간당 4-7개 정도의 어휘를 학습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8-10개 정도의 어휘를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표 6참고).

표 6

### 어휘 수에 대한 인식

1. 영어수업 시간마다 새롭게 배워야 할 단어의 수가 몇 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학년	1-3개	4-7개	8-10개	11-14개	15-20개	기타
3	26(13.2%)	38(19.3%)	34(17.3%)	35(17.8%)	62(31.5%)	2(1%)
4	47(17.6%)	68(25.5%)	58(21.7%)	48(18.0%)	46(17.2%)	0(0.0%)
5	46(13.7%)	77(23.0%)	89(26.6%)	60(17.9%)	63(18.8%)	0(0.0%)
6	31(13.7%)	52(23.0%)	50(22.1%)	41(18.1%)	52(23.0%)	0(0.0%)
전체	150(14.6%)	235(22.9%)	231(22.5%)	184(18.0%)	223(21.8%)	2(.2%)

$\chi^2 = 30.019, p=0.12$

4. 영어수업시간에 몇 개의 단어를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1-3개	4-7개	8-10개	11-14개	15-20개	기타
전체	108(10.6%)	241(23.6%)	237(23.2%)	228(22.4%)	202(19.8%)	4(.4%)
3.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수업 시간마다 몇 개의 단어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학년	1-3개	4-7개	8-10개	11-14개	15-20개	기타
3	20(10.2%)	35(17.9%)	40(20.4%)	39(19.9%)	59(30.1%)	3(1.5%)
4	28(10.4%)	57(21.3%)	70(26.1%)	58(21.6%)	55(20.5%)	0(.0%)
5	28(8.3%)	63(18.8%)	92(27.4%)	81(24.1%)	71(21.1%)	0(.0%)
6	23(10.1%)	40(17.6%)	44(19.4%)	60(26.4%)	60(26.4%)	0(.0%)
전체	99(9.6%)	195(19.0%)	246(24.0%)	238(23.2%)	245(23.9%)	3(.3%)

$$\chi^2=30.43 \quad p=0.033$$

항목별로 살펴보면 영어 수업시간마다 몇 개의 단어를 학습하는 것이 적당한가에 대한 질문에 4-7개가 적당하다고 언급한 학생이 22.9%, 8-10개라고 응답한 학생이 22.5%, 15-20개라고 응답한 학생이 21.8%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영어수업시간에 학습이 가능한 어휘 수를 묻는 문항에서도 4-7개라고 응답한 경우가 23.6%, 8-10개라고 응답한 경우가 23.2%, 11-14개라고 응답한 경우가 22.4%로 나타났다. 또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몇 개의 어휘를 학습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8-10개라고 응답한 경우가 24%, 11-14개라고 응답한 경우가 23.2%였으며, 15-20개라고 응답한 경우도 23.9%로 나타났다.

해외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인식차이는 영어 수업시간마다 몇 개의 단어를 학습하는 것이 적당한가에 대한 질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chi^2=15.78 \quad p=.007$ ). 해외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15-20개라고 응답한 학생이 34.8%로 가장 많았으며, 없는 경우는 4-10개라고 응답한 학생이 23.8%로 가장 많았다. 반면에 사교육에 따른 인식차이는 위 모든 질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는 경우 15-20개 단어(24.7%)를, 받지 않은 경우 8-10개 단어(27.5%)를 영어 수업시간마다 학습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chi^2=20.82 \quad p=.001$ ). 또한 사교육을 받는 경우 11-14개 단어를 영어 수업시간에 학습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3.4%로 가장 많았으며, 받고 있지 않는 경우는 4-7개라고 응답한 경우가 29.8%로 가장 많았다( $\chi^2=22.04 \quad p=.001$ ).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받는 경우 15-20개의 단어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8%로 가장 많았으며,

받지 않는 경우 8-10개의 단어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7.8%로 가장 많았다( $\chi^2=28.60$   $p=.000$ ).

위와 같은 결과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언어형식 및 개념을 동시에 학습해야 하는 부담감을 고려하여 시간당 4-8개의 단어를 학습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한 선행연구(Wendy & Ytreberg, 1990)와 L2/EFL 학습에게 시간당 5-7개의 단어를 가르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한 Cross(1995)의 연구와 유사하게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도 시간당 4-10개 범위 사이의 단어를 학습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초등학교 학생들은 영어수업시간마다 최소 4개의 어휘를 학습할 수 있으며, 영어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최소 8개의 어휘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연하게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가르치게 되어 있는 어휘 수(시간당 1.5개; 총 520 단어)가 매우 적으므로 최소 시간당 4개 단어 정도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학습할 어휘 수를 현실 수준으로 늘릴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3) 학습 희망 어휘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단어 유형을 조사한 결과 표 7에서와 같이 인사와 사과에 관련된 단어, 색깔과 모양에 관련된 단어, 운동·취미·오락에 관련된 단어, 학교생활에 관련된 단어, 가정생활에 관련된 단어, 인물·직업에 관련된 단어, 공공시설 건물에 관련된 단어, 신체에 관련된 단어, 교통·통신·방향에 관련된 단어, 상태·성질에 관련된 단어, 우주 및 자연에 관련된 단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교육 유무 및 해외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빈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순서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다중응답 결과 50% 이상의 빈도에 해당된 영역을 학년별로 살펴 볼 때, 3-6학년 모두 공통적으로 인사와 사과에 관련된 단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한 영역은 3-5학년까지는 색깔과 모양에 관련된 단어이며, 6학년의 경우는 운동·취미·오락에 관련된 단어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많이 응답한 영역은 3-5학년까지 운동·취미·오락과 관련된 단어로 나타났으며, 6학년의 경우 색깔과 모양에 관련된 단어로 나타났다. 네 번째 영역으로는 3-4학년의 경우 학교생활과 관련된 단어로 나타났고, 5-6학년의 경우 가정생활과 관련된 단어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영역으로는 3-4학년은 가정생활과 관련된 단어로 나타났으며, 5-6학년의 경우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단어로 나타났다. 그밖에 50% 이상의 빈도를 나타내는 경우로는 6학년의 경우 인물·직업과 관련된 단어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습한 영어단어 중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어떤 유형의 단어를 더 배우고 싶어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개방형 두 문항의 응답을 유형 및 빈도로 정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7  
잘 알고 있다고 인식되는 어휘 영역(문항 7)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Total
인사와 사과에 관련된 단어	131 (80.4%)	197 (77.9%)	245 (75.6%)	163 (77.3%)	736 (77.5%)
학교생활에 관련된 단어	90 (55.2%)	149 (58.9%)	167 (51.7%)	114 (54.0%)	520 (54.7%)
가정생활(의식주)에 관련된 단어	86 (52.6%)	124 (49.0%)	186 (57.6%)	115 (54.4%)	511 (53.8%)
색깔에 관련된 단어	108 (66.35)	188 (74.3%)	229 (70.9%)	140 (66.4%)	665 (70.0%)
신체에 관련된 단어	75 (46.0%)	102 (40.3%)	84 (26.0%)	59 (28.0%)	320 (33.7%)
인물, 직업에 관련된 단어	59 (36.2%)	120 (47.45%)	130 (40.2%)	107 (50.7%)	416 (43.8%)
우주 및 자연에 관련된 단어	36 (22.1%)	56 (22.1%)	51 (15.8%)	42 (19.9%)	185 (19.5%)
운동, 취미, 오락에 관련된 단어	96 (58.9%)	176 (69.6%)	227 (70.3%)	147 (69.7%)	646 (68.0%)
교통, 통신, 방향에 관련된 단어	46 (28.2%)	99 (39.1%)	90 (27.9%)	78 (37.0%)	313 (32.9%)
상태, 성질에 관련된 단어	34 (20.9%)	43 (17.9%)	79 (24.5%)	46 (21.8%)	202 (21.3%)
공공시설, 건물에 관련된 단어	46 (28.2%)	105 (41.5%)	107 (33.1%)	66 (31.3%)	324 (34.1%)

표 8  
학습 희망 어휘 영역

	학습 희망 어휘	자주 사용하는 어휘 <sup>1</sup>
가정생활 관련 어휘 (의식주) (986)	복도리, 머리 끈, 고무줄, 귀걸이, 손톱깎이, 양복, 의류, 잠바, 화장품, 밀가루, 보온병, 음식, 식생활, 기름, 인삼, 지퍼백, 탄산음료, 물뿌리개, 빗자루, 고무장갑, 신발장 등	형용사 (267) good, happy, fine, nice, bad, beautiful, tall, cool, crazy, hungry, big, great, impossible, left, little, perfect, old, open, right, pretty, easy, cute 등
학교생활 관련 어휘 (647)	고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초등학교, 학원, 반장, 교장 선생님, 사회, 과학, 도덕, 수학, 단원, 일기, 교과서, 알림장, 졸업식, 연필깎이, 책꽂이, 학용품, 교복, 상장 등	동사 (153) like, play, go, want, love, eat, did, study, sleep, try, went, wish, was, turn, use, stop, cook, can, are, must, run, see, have, finish, know, leave 등

<sup>1</sup> 초등영어교육은 음성언어중심이며 본 연구의 목적은 어휘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영어 철자가 틀린 경우나 해당 단어를 한글 음으로 제시(good; 굿)한 경우도 해당 단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자연, 우주, 과학 관련 어휘 (566)	공기, 외계인, 자것, 토성, 태양, 폭풍, 목성, 원자, 지구, 수성, 성질, 미래, 달, 인공위성, 은하수 등	학교생활 관련 어휘 (135)	Book, pencil, pen, school, pencil case, eraser, English, color pen, class, note, notebook, paper, homework 등
직업 관련 어휘(454)	가수, 의사, 마법사, 요리사, 박사, 연예인, 직업, 회사원, 대통령, 군인, 변호사, 인물 등	동물 (106)	cat, dog, pig, lion, monkey, bee, ant, cow, puppy, tadpole, bear, beast 등
운동, 취미 오락 관련 어휘(256)	축구, 피구, 취미, 바둑, 운동, 썰매, 춤, 줄넘기, 놀이기구, 농구, 배구, 바둑 등	시간 및 날씨 관련 어휘 (80)	Monday, day, sunny, cold, yesterday, Sunday, time, today, Christmas, snowing, morning, night 등
공공시설, 건물 관련 어휘(241)	공공시설, 계급, 건물, 성당, 사다리, 지진, 연구소, 법원, 교회, 가로등, 벽돌, 울타리, 소방서, 계단, 육교, 상가 등	과일 야채 (66)	Apple, banana, peach, orange, grape, tomato 등

표 8에서 보듯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어휘 영역은 형용사, 동사, 학교생활, 동물, 시간 및 날씨, 과일 및 야채와 관련된 어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역에 속하는 어휘를 좀더 자세히 살펴 보면 형용사나 동사로 분류된 어휘도 비교적 학교생활과 관련된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학교생활 영역으로 분리된 단어도 이와 관련된 명사 유형의 단어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어휘 영역은 학교생활과 관련된 어휘이며, 이 영역 중에서도 적용범위와 분포가 상대적으로 넓은 형용사 유형과 동사 유형의 단어를 학생들이 실제로 자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더 학습하기를 희망하는 어휘 영역은 가정생활(의, 식, 주), 학교생활, 자연 및 우주, 직업, 운동 및 취미, 공공시설 및 건물과 관련된 어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제시된 모든 어휘는 명사에 해당되는 단어로 나타났다. 또한 제시된 명사의 예를 살펴 보면 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구체적인 대상물/활동(손톱깎이, 머리 끈, 고무장갑, 빗자루, 연예인, 대통령, 변호사, 피구, 바둑, 교회, 육교, 상가, 사다리 등)을 나타내는 명사 이거나 학교생활 및 학습내용과 관련된(교장선생님, 사회, 과학, 일기, 졸업식, 원자, 목성, 폭풍, 인공위성 등) 대상물/내용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어휘 영역은 학교생활과 관련된 어휘로 제한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어휘와 자주 사용하는 어휘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주로 학습자의 일상생활, 학교생활 및 학습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상물이나 활동을 나타내는 명사형태의 단어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Fox, 1987; Laufer, 1998; Nation, 1990; Waring, 1997a)에서 제시하였듯이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의 학습 차이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학습자의 흥미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어휘가 적용범위, 분포 및 빈도와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본 어휘를

선별할 때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분야의 어휘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김영숙(1997)이 제안하였듯이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를 구분하여 기본어휘수의 제한을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어휘능력 수준과 초등영어교과서 어휘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다수의 학생들이 최소 500 단어 이상의 어휘를 이미 알고 있으며, 영어교과서의 어휘를 쉽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어휘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식은 사교육 유무, 학년 및 해외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이중에 손승희(2006)의 연구에서처럼 사교육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500-750 단어 수준의 어휘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휘능력 시험 결과 초등학교 학생의 44.9%가 500 단어 수준의 어휘능력을, 38%가 750 단어 수준의 어휘능력을 갖고 있었으며, 1100 단어 수준의 어휘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도 6%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300 단어 수준의 어휘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의 수는 줄고 500-1100 단어 수준의 어휘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700 단어 수준의 어휘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수는 3, 4, 5, 6학년에 각각 27.4%, 34.4%, 42.2%, 45.6%로 증가하였으며, 1100 단어 수준의 어휘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수도 각각 1%, 4.1%, 7.7%, 10.1%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 2008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하도록 권장되고 있는 520 단어 이상의 어휘를 이미 초등학교 학생들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초등학교 학생의 어휘능력 시험 결과는 사교육과 해외교육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받지 않은 학생보다, 해외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은 학생이 받지 않은 학생보다 500 단어 수준 이상의 어휘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다소 많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사교육과 해외교육 경험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어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 연구결과(김영숙, 1997; 김인석, 정동빈, 1999; 박제희, 2003; 안미정, 2006)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써 초등 기본 권장 어휘의 수를 현실 수준에 적합하게 증가시킬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대다수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영어교과서에 제시된 어휘가 어렵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학생이 영어 수업시간에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학습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84.1%), 구체적으로 학습한

단어의 70%이상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49.0%였으며, 단어의 50% 이상을 알고 있는 경우까지 합할 경우는 79.5%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도 학년별, 사교육, 해외교육 경험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가 받고 있지 않은 경우 보다 학습한 단어의 50% 이상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수가 약 20%이상 많았다. 또한 학년이 올라 갈수록 영어수업이 단어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감소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에 제시된 어휘가 학습자의 수준에 비하여 쉽다는 것을 시사하며,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어휘 학습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따라서 어휘가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에 중요한 기본 단위 (김영숙, 2002; 안미정, 2006; Higgs & Clifford, 1982; Laufer, 1997; McCarthy, 1990; Read, 2000)이며 언어 입력의 수준이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에 중요하다는 점(Krashen, 1981)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영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에 제시된 어휘 수준과 어휘 수를 현실에 적합하게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다수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영어수업시간에 시간 당 최소4개 이상의 어휘를 학습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4-7개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2.9%, 8-10개가 22.5%, 11-14개가 18.0%, 15-20개가 21.8%로 나타났다. 또한 다수의 학생이 시간당 최소 5개 이상의 단어를 학습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간 당 8-10개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인식은 사교육 유무에 따라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해외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서도 차이가 약간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는 모국어 학습자에게 시간당 4-8개의 단어를 학습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선행연구(Wendy & Ytreberg, 1990)나 L2/EFL 학습자에게 시간당 5-7개의 단어를 가르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선행연구(Cross, 1995)에서처럼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도 시간 당 최소 4개의 단어를 학습할 수 있으며,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단어인 최소 8개 이상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EFL 환경의 다른 나라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는 시간당 어휘 수(Fox, 1987; Nation, 1990)와 관련된 연구결과와 더불어 현행 2008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어휘 수(시간당 1.5개: 총 520단어)가 매우 적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시간당 최소 4개정도의 단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기본 어휘 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어휘영역은 학교생활과 관련된 어휘로 제한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어휘와 자주 사용하는 어휘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은 주로 학습자의 일상생활, 학교생활 및 학습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상물이나

활동을 나타내는 명사형태의 단어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Fox, 1987; Laufer, 1998; Nation, 1990; Waring, 1997)에서 제시하였듯이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의 학습 차이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학습자의 흥미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어휘가 적용범위, 분포, 빈도와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본 어휘를 선별할 때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분야의 어휘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김영숙(1997)이 제안하였듯이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를 구분하여 기본 어휘수의 제한을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권장 어휘 수를 현실적으로 시간당 최소 4개 단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어휘 목록을 확장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습자가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는 일상생활, 학교생활 및 학습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상물이나 활동을 나타내는 명사형태의 단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초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에는 기타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대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교육부. (1999). *초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 서울: 대한교과서.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외국어과 교육과정(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60호.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김영숙. (1997). 초등 영어 기본 어휘에 관한 제언. *초등영어교육*, 3, 5-17.
- 김영숙. (2002). *초등영어 어휘 교육*. 서울: 한국문화사.
- 김영태. (2002). 초등영어 어휘 분석.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7(1), 49-75.
- 김영현, 박영임, 조은희. (2008). 초등 영어 교재의 명사 어휘 조사 분석. *초등영어교육*, 14(1), 99-125.
- 김인석, 강진. (2007). 7차 교육과정 하에서의 초등학생들의 영어 어휘 성취도 측정 연구. *초등영어교육*, 13(3), 35-63.
- 김인석, 정동빈. (1999). 초등영어 교육을 위한 새로운 어휘목록의 제시에 관한 연구. *초등영어교육*, 5(1), 105-140.
- 김정열, 천윤희. (2008). 코퍼스 언어학적 분석을 통한 초·중등 영어 교과서의 연계성 연구: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영어교육*, 63(2), 361-394.
- 김지현. (2005). *우리나라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 개선을 위한 싱가포르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 분석*.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충북.
- 김택수. (2003). 초등학교 영어교재 어휘 분석. *언어학*, 11(4), 1-18.

- 박제희. (2003). *한, 중, 일(EFL 환경)과 싱가포르(ESL 환경) 초등영어 교과서 비교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서울.
- 배두분. (1997). *초등학교 영어교육: 이론과 적용*. 서울: 한국문화사.
- 서은경. (2008). 한국과 싱가포르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 어휘 비교 분석. *영어교육연구*, 20(3), 225-249.
- 손승희. (2006). 초등학생의 영어 어휘 습득 요인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연구*, 18(4), 111-135.
- 신동광, 주현우. (2008). 영어과 교과서 검정용 어휘 목록 개발: 어휘 검색 프로그램 및 기본 어휘 목록에 대한 고찰.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11(3), 93-111.
- 안미정. (2006). *한국과 싱가포르 영어교과서의 코퍼스 언어학적 어휘 비교분석*.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서울.
- 이완기. (1996). *초등영어교육론*. 서울: 문진미디어.
- 이완기, 최연희, 부경순, 이정원. (2001). 중학교 1학년 영어교육에 나타난 초등 영어교육의 효과. *영어교육*, 56(4), 211-241.
- 이홍배, 권오량, 김임득, 부경순, 이완기, 최연희, 허경철. (1995). *국민 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시안)*. 서강대학교 국민학교 영어과 교육 과정 연구 위원회.
- 이효용, 오준일. (2000). 영어 학습 태도와 능력간의 상관 관계. *영어교육*, 55(4), 389-409.
- 장경숙. (2007). 영어과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 *영어교육*, 62(2), 331-353.
- 최연희, 이정원, 이완기, 부경순. (2003). 중학교 영어교육의 실태 분석을 통한 초등영어교육의 효과 검증 학생 설문 조사 준석을 중심으로. *초등영어교육*, 9(1), 131-165.
- 최진향, 박기화, 김은주, 정국진, 노시백. (1977).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두진. (2006).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 어휘 분석.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1(1), 75-98.
- Blaas, L. (1992). *Fossilization in the advanced learner's lexicon*.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Utrecht, Department of English, The Netherlands.
- Bonk, W. (2000). Second language lexical knowledge and listening comprehen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Listening*, 14, 13-31.
- Brown, C. (1993). Factors affecting the acquisition of vocabulary: Frequency and saliency of words. In T. Huckin, M. Haynes & J. Coady (Eds.), *Second language reading and vocabulary learning*, (pp.263-286). Norwood, NJ: Ablex.

- Brown, C. (2007). Factors affecting the acquisition of vocabulary and saliency of words. In T. Huckin, J. Haynes, & J. Coady (Eds.), *Second language reading and vocabulary learning* (pp. 263-286). Norwood, NJ: Ablex.
- Carter, R. A. (1987). *Vocabulary: Applied linguistic perspectives (2nd ed.)*. London: Allen & Unwin.
- Cook, V. (1994). Universal grammar and the learning and teaching of second language. In T. Odlin (Ed.), *Perspectives on pedagogical grammar* (pp. 25-4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oss, D. (1995). *Practical handbook of language teaching*. New York: Phoenix ELT.
- Fox, L. (1987). On acquiring an adequate second language vocabulary. In M. Long & J. Richard (Eds.), *Methodology in TESOL: A book of readings* (pp. 307-311). Boston, MA: Heinle & Heinle.
- Gass, S. M. (1988). Second language vocabulary acquisition.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9, 92-106.
- Goulden, R., Nation, P., & Read, J. (1990). How large can a receptive vocabulary be? *Applied Linguistics*, 11, 341-363.
- Gower, R., Phillips, D., & Walter, S. (1995). *Teaching practice handbook* (3rd ed.). New York: Macmillan Heinemann ELT.
- Haycraft, J. (1978). *An introduction to English language teaching*. New York: Longman.
- Henning, G. H. (1973). Remembering foreign language vocabulary: Acoustic and semantic parameters. *Language Learning*, 23, 185-196.
- Higgs, T. V., & Clifford, R. (1982). *Curriculum competence and the foreign language teacher*. Lincolnwood, IL: National Textbook Company.
- Higa, M. (1965). The psycholinguistic concept of difficulty and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 vocabulary. *Language Learning*, 15, 167-179.
- Hirsh, D., & Nation, P. (1992). What vocabulary size is needed to read unsimplified texts for pleasure?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8, 689-696.
- Hu, M., & Nation, P. (2000). Unknown vocabulary density and reading comprehension.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13(1), 403-430.
- Jordan, R. (1982). Pyramid discussions. *ELT Journal*, 44, 46-54.
- Krashen, S. (1981).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Oxford: Pergamon Press.
- Lado, R. (1964). *Linguistics teaching*. New York: McGraw Hill.
- Lambert, W. (1972). *Language, psychology, and culture: Essays by Wallace E. Lambert*.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ufer, B. (1992). Beyond 2000: A measure of productive lexicon in a second language. In L. Eubank, L. Selinker, & M. Sharwood Smith (Eds.), *The current state of*

- interlanguage: Studies in honor of William. E. Rutherford* (pp. 265-272). Amsterdam: John Benjamins.
- Laufer, B. (1997). The lexical plight in second language reading: Words you don't know, words you think you know, and words you can't guess. In J. Coady, & T. Huckin (Eds.), *Second language vocabulary acquisition: A rationale for pedagogy* (pp. 20-3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ufer, B. (1998). The development of passive and active vocabulary in a second language: Same or different? *Applied Linguistics*, 19(2), 255-271.
- McCarthy, M. (1990). *Vocabul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cCarthy, M. (1991). *Discourse analysis for language teach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ckey, W. F. (1965). *Language teaching analysi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Meara, P. (1984). The study of lexis in interlanguage. In A. Davies, C. Criper & A. P. R. Howatt (Eds.), *Interlanguage* (pp. 225-235). Edinburgh: University of Edinburgh Press.
- Nation, P. (1990). *Teaching and learning vocabulary*. Boston, MA: Heinle & Heinle
- Nation, P. (1993). Measuring readiness for simplified material: A test of the first 1,000 words of English. In M. L. Tickoo (Ed.), *In simplification: Theory and application* (pp. 193-203). RELC Anthology Series 31. Singapore: SEAMEO Regional Language Center.
- Nation, P. (1997). Teaching vocabulary. In J. Coady, & T. Huckin (Eds.), *Second language vocabulary acquisition*, (pp. 238-25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tion, P. (2003). Vocabulary. In D. Nunan (Ed.), *Practical English language teaching* (pp. 129-152). New York: McGraw-Hill.
- Nunan, D. (2000).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New York: Longman
- Read, J. (2000). *Assessing vocabula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ad, J. (2004). Research in teaching vocabulary.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24, 146-161.
- Richard, J. (1974). Word lists: Problems and prospects. *RELC Journal*, 5(2), 69-84.
- Rodgers, T. S. (1969). On measuring vocabulary difficulty: An analysis of item variables in learning Russian-English vocabulary pairs. *IRAL* 7, 327-343.
- Saville-Troike, M. (1976). *Foundations for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Theory and method for multicultural educ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Schmitt, N. (1998). Quantifying word association responses: What is native-like? *System*, 26, 389-401.
- Skehan, P. (1989). *Individual difference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Longman: Edward Arnold.



- Taylor, B. (1990). *Teaching and learning vocabulary*. Hemel Hempstead: Prentice Hall International.
- Waring, R. (1997). A comparison of the receptive and productive vocabulary sizes of some second language learners. *Immaculata*, 1, 53-68.
- Wendy, A. S., & Ytreberg, L. H. (1990). *Teaching English to children*. London: Longman.
- White, R. (1988). *The ELT curriculum*. Oxford: Basil Blackwell.
- Zareva, A. (2007). Structure of the L2 mental lexicon: How does it compare to native speakers' lexical organization? *Second Language Research*, 23, 123-153.

맹은경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  
Tel: (031) 219-1883/ H.P.: 010-4730-5329  
Email: my5329@ajou.ac.kr

김성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00-784 서울 중구 정동길 15-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Tel: (02) 3704-3817/ H.P.: 010-9098-5610  
Email: sunghye924@hanmail.net

Received 13 April 2011

Revised 1 June 2011

Accepted 13 June 2011